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천 호 준**

1. 서론
2. 기록의 평가와 평가이론의 검토
 - 1) 기록의 평가와 기록평가론의 역사
 - 2) 기록의 가치를 준거로 한 미시평가
 - 3) 기록의 맥락분석을 기반으로 한 거시평가
 - 4) 기록 평가의 기준과 절차
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
 - 1)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조와 운영
 - 2)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생산구조
 - 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보존관리
 - 4)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특성

* 이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2009년도 한국체육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논문임을 밝혀드립니다.

**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주요논저: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올림픽 기록사료 관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체육사학회, 2011 ;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4호, 한국기록학회, 2010 ; 「대사례 의뢰의 스포츠 기록사적 의미」,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5권 제1호, 한국체육사학회, 2010 ; 「스포츠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체육과학연구』 제19권 제3호, 체육과학연구원, 2008.

4.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
 - 1)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방법
 - 2)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기준
 - 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절차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이 연구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고 올림픽 사료 이용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록의 평가와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검토하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올림픽대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여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첫 번째 연구 과제는 우선, 기록의 구조요소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과 이들과 평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간 발전되어 온 평가방법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후 개별 이론의 구체적 방법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대표적인 이론을 탐구하였고, 기록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고찰과 공문서의 생산 구조를 분석하여 기록이 생산되는 원리를 파악하였다. 이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

위원회 공문서 관리의 실제와 잔존 기록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과 생산 원리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공시적이고 통사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론을 탐색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에 대한 기록학적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서울올림픽대회 사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포함한 체육·스포츠 분야의 사료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 연구는 체육·스포츠 분야의 기록 사료 관리를 위해 기록학적 방법론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다룸으로써 체육·스포츠학 분야에서 기록학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끝으로, 체육·스포츠 사학과 관련 학문의 전반적인 진전을 위해서 체육·스포츠 분야의 사료 이용과 관리의 측면에서 기록학적 이론을 적극적으로 원용한 연구와 실제적인 적용 방식에 대한 천착이 요구됨을 제기한다.

주제어: 올림픽, 올림픽대회, 서울올림픽대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록관리, 기록평가

1. 서론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 사회 전반에 걸친 기록인식의 후퇴

와 기록 관리 수준의 저하는 체육·스포츠 분야에서의 기록관리 현실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체육·스포츠 관련 기관 내에 기록관리 기관이나 담당부서는 존재하고 있지만 기록에 대한 현재적 인식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기록물의 보존 관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 체육·스포츠사를 관통하는 의미를 지닌 서울올림픽대회 관련 사료가 연구자들의 평가도 받지 못한 채 허술한 보존 관리의 체계 속에 방치되거나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학문적 차원에서 보존된 기록 사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서울올림픽대회 관련 역사 및 사회학적 서술의 폭을 제한시키고, 역사 해석의 객관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상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존재 유무에 대한 소개뿐만이 아니라 사료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사료의 적극적인 제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¹⁾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고 올림픽 사료(史料) 이용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기록의 평가와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검토하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올림픽대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절차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수행한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연구과제는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정합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록의 구조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그들과 평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간 발전되어 온 평가방법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1)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일제시기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에 관한 기록학적 평가사업 예비 계획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1쪽.

것이였다. 이후 개별 이론의 구체적 방법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대표적인 이론을 탐구하였고 기록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해진 기간에 한시적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일반적인 행정 기록과 그 성격의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조직을 그 구조와 운영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공문서의 생산 구조를 분석하여 기록이 생산되는 원리를 파악하였다. 이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 관리의 실제와 잔존 기록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과 생산 원리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공시적(共時的), 통사적(通史的) 특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론을 탐색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고찰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은 기록학의 평가이론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성격을 검토할 수 있는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기관인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실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올림픽 기록사료에 대한 이용과 관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체육·스포츠사학과 관련 학문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의 체육·스포츠 분야에서는 올림픽 기록사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기록 사료 관리에 관한 과학적인 방법론의 부족

속에서 폭넓은 연구 성과를 도모하기 어려웠으며, 이루어진 연구에서 조차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료를 평가하고 이를 선택하여 사용해 왔다. 이 연구는 올림픽 기록사료를 대상으로 기록학적 평가 방법론의 적용을 다룸으로써 서울올림픽대회 관련 연구를 위한 사료 이용과 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체육·스포츠 사학을 포함한 관련 학문의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올림픽과 유사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사료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다양한 후속연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육학과 기록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체육·스포츠의 지나온 궤적을 돌이켜 볼 때,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의 개최이후 국내에서는 다양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였으며, 향후 다수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 연구에서 다룬 서울올림픽대회 사료에 대한 기록학적 평가 방안은 이미 개최된 유사 스포츠 이벤트의 기록 사료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탐색과 개최할 예정인 스포츠 이벤트의 기록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체육·스포츠 분야의 기록 사료 관리에 기록학적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체육사학과 기록학이 상호 교차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2. 기록의 평가와 평가이론의 검토

기록 평가란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남길 기록을 선별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록의 평가를 정합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구조에 대한 통찰력 있는 사고와 그

들과 평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간 발전되어 온 평가 방법론의 역사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록 평가 이론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결국, 기록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 요소들과 평가는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방법론의 흐름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록이 담아내는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록 평가의 의미와 기록 평가 이론의 역사, 기록의 미시평가론 및 거시평가론 그리고 기록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였다.

1) 기록의 평가와 기록 평가론의 역사

(1) 기록의 구조와 평가

기록학의 핵심 영역인 평가는 기록이 지닌 의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 기록의 의미를 구성하는 내용과 맥락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과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그간 기록 평가 이론에서의 접근 방식은 내용을 주로 평가하는 미시적 평가 방식에서 맥락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시적 평가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전자의 평가 방식이 기록이 지니고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 기록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와 같은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기록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들 간의 질서는 물론 기록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 즉,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기록 평가론의 흐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체제가 확립되어 공공 업무가 비대화 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량이 폭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 분류 이론은 기록관리학(archival Science)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평가이론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²⁾ 결국 근대 이후 현대 사회에 걸친 기록량의 폭증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이 시기 기록의 평가를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 평가론은 개별 기록 자체의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의 방법과 절차를 다룬 미시 평가론에서 출발하였다. 미시 평가론은 개별 기록의 내용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주관적 판단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과정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미시 평가론은 보존문서의 양적 증가와 사회 현상을 간과한다는 비판 속에서 사회나 지역, 주제 영역에 관한 표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시 평가론으로 발전하였다. 거시 평가론은 기록이 생성된 다양한 배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틀을 구성하고 이러한 틀에 잔존 기록을 대비시켜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다룬 이론으로 현재까지 발전하고 있다.

2) 기록의 가치를 준거로 한 미시평가

기록 관리 영역에서의 평가의 본질은 생산된 기록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기록을 선별 수집하는 일련의 실천 행위로 규정할 수 있

2) 김익한, 「기록물 관리체제론 및 평가분류론의 새로운 흐름」, 『기록보존』 제11호, 1998, 182쪽.

다. 따라서 기록 내용의 가치 평가를 위해 인식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미시적 평가이론은 기록학적 평가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과 접근방식을 제공한다.³⁾

Philip C. Brooks와 G. Philip Bauer 등은 기록의 가치를 일정한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기하였는데, 최초로 기록 가치의 범주를 구분한 것은 기록 평가 선별결정에 대한 객관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의미하였다. 특히, Philip C. Brooks(1940)⁴⁾가 기록의 가치 기준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원래의 생산목적과 이후 별도의 맥락에서 생겨난 기록의 가치를 구분한 것은 기록의 생애주기를 활용·준활용·비활용의 단계로 나누는 이른바 기록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기록 평가 선별에서 기록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 갖는 의미는 기록이 존재하는 전체 시간범위 속에 기록의 효용성이 구별되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데 있다. 기록의 미시 평가론에 있어서 기록의 라이프 사이클 개념은 기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Theodore Schellenberg(1956)⁵⁾에 의해 정교화 되어 기록의 효용 가치를 기록이 생성될 때 발현되는 가치와 그 이후에 발현되는 가치로 구분하는 평가방법론인 정보가치론을 제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보가치론은 기록 평가선별에 있어서 정식화된 지표를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치론의 경우 보존 문서의 양적 증가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일제시기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에 관한 기록학적 평가 사업 예비 계획서』, 4쪽.

4) Philip C. Brooks, "The Selection of Records for Preservation", *American Archivist* 3, 1940, pp. 228~234 ; 오항녕 역, 『기록학의 평가론』, 진리탐구, 2005, 9쪽 참고.

5) T. R. Schellenberg, *The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Bulletin of the National Archives* No. 8(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1956 ; 오항녕 역, 같은 책, 9쪽.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Leonard Rapport(1981)⁶⁾이다. 그는 기록의 가치 기준에 보존비용의 개념을 포함해야 함을 주장하며 재평가이론을 제기하였다. 재평가이론은 기록의 가치 평가는 한정된 시설과 비용을 고려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효용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즉,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이러한 재평가이론은 정보가치론과 함께 미시평가의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3) 기록의 맥락분석을 기반으로 한 거시평가

기록 평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시 평가에 대한 최초의 관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기록의 평가 기준을 기록의 내용이 아닌 기록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같은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는 접근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의 주제나 사건 등에서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 유산을 확인하고 이들 기록에 대한 생산,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록의 수집 전략은 물론 평가 작업을 체계화하려는 접근방식이다⁷⁾.

전자의 대표적 예는 Hans Booms(1987)⁸⁾의 사회표상화론이다. 그의 논의는 후자의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후자의 논의가 체계화 된 이론은 문서화 전략론(documentation strategy)이다. 문서화 전략론은 기록 수집의 체계화를 위해서 유용한 방법론으로

6) Leonard Rapport, "No Grandfather Clause: Reappraising Accessioned Records", *American Archivist* 44, 1981 ; 오항녕 역, 같은 책, 7쪽.

7)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일제시기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에 관한 기록학적 평가사업 예비 계획서』, 5쪽.

8)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 오항녕 역, 『기록학의 평가론』, 217~221쪽.

인식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사회 배경을 중시하여 기록의 실제 생성 배경인 조직과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이론이 Terry Cook(2004)⁹⁾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 기능 평가론 또는 거시 평가론이다. 기능 평가론은 국가 단위의 공공기록물을 평가할 때 사용이 가능한 이론으로 기록관리 선진 국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4) 평가의 기준과 절차

평가의 본질이 기록이 지닌 의미나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표상화 과정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전자의 경우 미시 평가의 영역에서, 후자의 경우 거시 평가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들에게는 평가 선별에 관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식화된 지표와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Frank Boles(1991)¹⁰⁾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아키비스트가 일반적으로 영구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확인과 선별을 위해 사용하는 분석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기록의 기능적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생산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이라 하며 여기서는 기록 본래 목적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직위계 내에서 기록물 생산 위치의 중요성, 기록물 생산자 기능의 중요성 그리고 기록물의 중요

9) Terry Cook,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documenting governance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 25, 2004 ; 박혜진, 「거시평가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2005, 23쪽.

10) Frank Boles, *in association with Julia Marks Young, Archival Appraisal*,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1991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101~119쪽.

성 등을 파악한다. 둘째, 기록의 중요성과 질을 결정하기 위한 기록 속의 정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라 하며 여기서는 기록의 정보적 중요성을 주로 평가하며 주제의 중요성, 도큐멘테이션의 질(質) 등을 확인한다. 셋째,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원과의 관련성, 즉 컨텍스트(context) 속에서의 기록을 분석한다. 이외에도 컨텍스트 분석(Context Analysis), 기록의 잠재적 이용(이러한 잠재적 이용은 보존소에 소장될 기록물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사용된다)과 접근의 물리적, 법적, 지적 제한에 대한 분석 즉 접근가능성과 이용에 대한 분석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기록 보존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비효율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Frank Boles(1991)의 논의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평가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주관적 평가 과정을 객관적인 지표 수립과 체계적인 절차와 같은 방법론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의 논의는 다양한 가치와 특수한 형태를 지닌 기록물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¹¹⁾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행위의 산물이므로 이러한 조직 기록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의 생산 조직을 이해하고, 생산 구조를 분석하여 기록이 생산되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또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

11) 본장의 내용은 천호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4호, 2011, 113~171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회의 공문서 관리의 실제와 잔존 기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과 생산 원리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특성을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조와 운영,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생산 구조 그리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보존 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제시하였다.

1)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조와 운영

(1) 성립과 변천

1981년 9월 30일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제24회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11월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발기인 총회 및 제1차 위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해 국제경기연맹 및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 체육부를 비롯한 행정부서, 정부 지원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서울시,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등과 같은 조직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¹²⁾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가 임박해지면서 여러 형태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 특히, 조직위원회의 사무처 기구는 1986년 서울아시안 게임을 거치고 서울올림픽 대회가 임박하면서 다양한 발전을 하게 되는데 1988년 3월에는 사무처의 기구를 3부 위원장(1사무총장 포함), 3사무차장, 1연구실장(1본부장), 39국장급(2실장, 1대변인, 1감사관, 1의진관, 6기획관, 3조정관, 1담당관, 23국, 1사무소), 125과장급(73과, 52담당

12)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지식 포털 시스템 : <http://contents.archives.go.kr/> 참고.

관)으로 조정하여 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2) 구성과 운영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SLOOC)는 한시적 조직으로서의 특성¹³⁾과 함께 타 조직에 비해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류시우(1985)¹⁴⁾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SLOOC)의 구조적인 특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합의제 조직과 단독제 조직의 이원적 조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직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의원총회 및 집행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집행기관으로서 사무처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일종의 매트릭스(Matrix)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직위원회가 총무국이 중심이 된 기능 조직과 프로젝트(Project) 중심의 여러 국, 과들로 형성된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트릭스 조직 구조로 구성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임박하면서 매트릭스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실제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직제는 사업이나 업무 이외의 목적¹⁵⁾으로도 수시로 변경되었고 조직의 규모는 더욱 복잡

13) 이재철은 한시적 조직의 특성을 한시적 조직의 효율성, 문제점 그리고 기능(機能)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시적 조직의 효율성으로는 전문적인 것의 통합화, 창조적 아이디어의 원천, 인적 자원의 경제적 활용, 자아실현적 욕구의 충족 그리고 조직단위간의 의견교환 활성화 등이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군웅할거(群雄割據)의 가능성, 권력투쟁, 직원평가제의 부재 그리고 결정의 지연 등이 있다. 특히, 한시적 조직의 기능으로는 경험이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처할 수 있는 점, 신속한 조직 구성이 가능한 점, 비공식 집단이 활성화 된다는 점 그리고 지식·기술의 이전 및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 이재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89, 7~8쪽.

14) 류시우,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한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1985, 86~86쪽.

15) “기본적으로 한시조직인 SLOOC의 직제가 사업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변할

하게 확대되어 갔다. 한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각종 협의회 및 전문위원회를 두어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

(3) 의사결정의 기구와 과정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로는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기구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위원총회의 경우 명목상의 기구에 불과했고 집행위원회의 경우 위원총회보다 조금 더 나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사무처가 준비한 원안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¹⁶⁾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실제로 위원장은 사무처의 최고책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도맡아 했다.¹⁷⁾ 이외에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로는 확대 간부회의, 조정간부회의, 집행 간부회의 그리고 전문위원회 등이 있었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으로는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방법과 위임전결¹⁸⁾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는 방법이 있었다. 전자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위원총회의 의결없이 수시로 신설·폐지할 수 있는 담당관(2급)이 126개의 과장급 중에서 53개나 되었다는 사실은 SLOOC직제의 유동성을 여실히 드러낸 단면이라 하겠다. 여기에 특정인을 승진·전보시키기 위한 직제변경까지 시도되었기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본다”. - 이재철, 같은 글, 27~30쪽.

16) 이재철, 같은 글, 32쪽.

17) 위원장의 막강한 의사결정권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져왔다. 순기능으로는 첫째, 의사결정의 속도를 빠르게 했다. 둘째,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이다. 역기능으로는 의사결정에 신중함이 결여되었다. 둘째, 조직의 경직성과 업무협조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넷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 이재철, 같은 글, 46~51쪽.

18) 위임전결(委任專決)이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서 결재 및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조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 경우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중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의사결정의 구조 내에서 조직위원장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위원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각각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최종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결재를 통한 의사결정과정 방법도 있었다. 이 방법은 기안된 문서의 결재 라인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업무 결재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자는 위원장이었고 비서실의 영향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조사¹⁹⁾되었다.

2)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생산구조

(1) 문서관리 부서

① 대회 준비단계의 문서관리 부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문서관리 업무는 기록의 성격과 형태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담당했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최초 문서관리부서는 기획조정실장 하위 부서로 자료국을 들 수 있다.

자료국의 업무인 준비업무 기록집 발간과 준비업무 기록 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일부 공문서가 수집되고 관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준비업무기록집을 검토한 결과, 준비업무기록집에 수록된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제2권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일지가 수록²⁰⁾되어

19) 이재철, 같은 글, 46쪽.

20) '88준비업무기록집은 총 2권으로 제1권은 조직운영편, 시설준비편, 수익사업편, 조직위원회일지의 목차로 구성되어 각각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2권은 행사준비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고유업무 처리과다와 사업담당자의 기록보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사업 자료 사본들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창구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에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제기되는 동시에 주요 내용들이 많이 누락되었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마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했다.²¹⁾

한편, 1983년 2월 28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문서규정을 제정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모든 문서는 총무국 서무과에서 접수하고 관리하도록²²⁾ 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문서규정의 목적²³⁾은 당시 정부공문서 규정²⁴⁾과 다를 바 없었다. 결국 이 시기 문서관리 부서의 업무 수행만으로는 준비 업무를 통해 생성된 중요 문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② 대회 운영단계의 문서관리 부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문서관리를 담당했던 총무부서는 대회 준비 여건과 상황에 따라 6차례에 걸친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
- 21)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부서 결과보고서 11 자료국』, 1988, 108쪽.
 - 22)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문서규정 제17조 제1항 참고.
 - 2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문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문서의 작성, 정리, 통제,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관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24) 1966년 5월 21일 제정된 「정부공문서 규정」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영은 공문서의 작성·처리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처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개정된 정부공문서 규정의 목적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1984년 11월 23일 「정부공문서 규정」 제1조 목적도 다음과 같다. “이 영은 공문서 작성·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문서의 처리 및 관리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문서 관리는 문서처리와 문서관리의 능률화와 표준화간소화가 목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만을 도모했을 뿐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불필요한 기록은 선별 폐기하여 당대의 중요한 역사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는 애초에 찾아볼 수 없었던 셈이다. - 박건홍, 『한국 국가 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역사비평사: 서울, 2003, 20쪽.

문서관리 부서도 변화를 맞이한다. 1988년 3월 이루어진 총무부서의 직제 개편에서는 서울올림픽대회 문서지원을 위한 문서담당관실이 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가 임박하면서 문서의 지원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인해 일어난 변화였다. 그러나 문서담당관실은 문서의 원활한 지원 업무만을 수행했으며 소속기관이던 문서지원센터의 목적 역시 각 대회 운영 본부의 대회 운영 및 준비상 수반되는 제반문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는데 주된 역점을 두고 있었다.²⁵⁾ 그러나 문서지원센터의 단계별 추진 업무를 살펴보면 문서지원 센터에서는 문서 처리뿐만 아니라 문서의 보존 관리 업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2) 문서관리 규정

① 대회 준비단계의 문서관리 규정

대회 준비단계의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의 문서규정은 당시 정부의 공문서 관련 규정²⁶⁾을 거의 답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정부의 공문서 관련 규정들은 행정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문서규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정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사무처의 문서규정의 목적도 문서의 작성, 정리, 통제,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무관리의 능률화와 통일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결국, 조직위원회 초기에는 중요한 기록을 후대에 남기

25)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부서 결과보고서 12 총무국』, 1988, 135쪽.

26) 1999년 공공기록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공공기록은 『정부처무 규정』, 『정부공문서 규정』, 『사물관리 규정』 등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해방 이후 정부는 1949년 정부처무규정을 제정하여 공공기록을 관리했으나 1961년에 정부공문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공공기록을 관리했다. 정부공문서 규정은 수차례의 일부 및 전부 개정을 거쳐 1991년 사물관리 규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고자 하는 최소한의 구조적인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들이 폐기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② 대회 운영단계의 문서관리 규정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문서관리는 대회가 임박할 때까지 상기한 문서규정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1987년 6월 서울올림픽대회 표준운영계획안에 총무의 업무 중 서무 업무의 지침²⁷⁾과 1988년 3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대회운영을 위한 주요지침²⁸⁾이 마련되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 지침들도 대회에 임박하면서 문서 업무의 현지성, 능률성, 신속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인관수, 대외문서 통제, 비밀취급인가를 제외한 문서 업무를 대회운영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문서규정과 큰 차이는 없었다. 단지 이 지침에서 “대회 이후 보관·보존문서는 별도의 문서정리 계획에 의거 처리²⁹⁾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조직위의 문서를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단초를 제공하였다.

(3) 공문서의 생산과 관리

① 공문서의 생산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문서규정을 토대로 공문서 생산과정을 검토한 결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문서규정은 당시 정부공문서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조직의 운영을 위한 공문서는 정부의 공문서 생산 과정과 유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생산은 일

27)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서울올림픽대회 표준운영계획』, 1987, 33~41쪽.

28)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대회운영을 위한 주요지침』, 1988, 83~88쪽.

29)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대회운영을 위한 주요지침』, 1988, 36쪽.

반적인 문서 사무관리 흐름에 따라 생산되었다. 즉,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문서의 기안, 결재, 등록, 통제, 시행, 정리와 분류, 편철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문서의 등록이다. 조직위원회는 문서를 등록할 때의 분류기호로 기관기호와 문서분류번호만을 사용했는데 이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던 조직위원회의 공문서가 파편화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당시 정부공문서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여 조직위원회의 복잡한 조직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문서의 등록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결국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임박해서야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종합 상황본부의 각 지원 기능부서는 기존 사무처 기관기호 및 수신번호를 사용케 하였다. 그러나 대회에 임박해서 마련된 이 지침은 프로젝트 부서의 혼란만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② 공문서의 보존과 폐기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보존 활동은 대회 준비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회 운영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회 준비단계에서의 소극적인 공문서보존 활동은 조직위원회의 문서규정도 잘 나타나 있다.

한편, 문서의 폐기는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도록 했고 보존기간이 10년인 문서로서 중앙행정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준영구인 문서는 당해문서를 처리·보존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당해문서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당해 문서를 이관한 행정기관의 장과 문서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

서에 대해서는 당해 문서를 처리·보존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 부기록보존소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공문서 규정은 한 시기록의 최종 폐기권한을 기록생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기록폐기 문 제에서 역사적 시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³⁰⁾ 점을 반증하는 것이 라 판단한다.

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보존관리

(1) 공문서의 보존 환경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981년부터 1988년 약 7년여의 준비기 간과 1988년 9월 17일부터 17일 동안에 걸친 대회기간, 그리고 조직위 원회가 해체³¹⁾될 때까지 많은 공문서를 생산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의 기록 인식에 대한 부족, 부실한 기록 관리부서와 허 술한 문서규정들은 당시 조직위원회의 일부 공문서들이 조직적으로 폐 기되거나 소멸되는 상황을 초래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 중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공문서 규정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은 1979년, 1984년, 1991년, 1997년에 걸쳐 네 차례 개정되었는데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보존 에 대한 관련 규정은 1984년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 면 1984년 이전에는 공공기록에 대한 폐기가 전적으로 생산기관의 판 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록을 보존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계기가 주로 사무실 이전과 사무 간소화, 기구의 통폐합 등이었다.³²⁾ 이렇듯 기록생산기관에서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

30) 박건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역사비평사, 2003, 34~36쪽.

31)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981년 11월 2일에 조직되어 1989년 10월 2일에 해체되었다. 조직위원회는 만 8년여 동안 활동을 지속한 것이다.

32) 시귀선,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전의 기록물 평가」, 제1회 기록물 평가분류 워크

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에 대한 이해나 고려가 전혀 없이 행정적 가치와 사무능률이라는 관점에서, 비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공공기록이 폐기되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³³⁾

(2) 공문서의 소장 현황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해 상당한 수의 공문서를 생산하고 관리하였다. 실제로 1984년에 설치된 자료국의 발간실³⁴⁾ 공문서 발간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1>³⁵⁾과 같다.

<표 1> 자료국 발간실의 공문서 발간실적

구분	건수	매수
1984년	149	167,773
1985년	206	197,353
1986년	131	67,466
1987년	222	196,452
1988년	267	176,174
계	975	805,218

1988년 3월을 기준으로 <표 1>의 자료국과 같은 국장급의 부서가 조직위원회에 39개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조직위원회

참 자료집, 정부기록보존소, 2001, 15쪽.

33) 광진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33쪽.

34) 발간실은 위원장의 지시로 1986년 서울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 운영에 따라 제반 유인물 발간을 신속·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외주 발간에 따른 시간·인력·예산 등의 낭비요소를 해소하고 전문성·능률성·경제성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켜 양 대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4년 7월 2일 설치하였다.

35)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지원부서 결과보고서 11 자료국』, 1988, 193쪽.

의 공문서 생산량은 상당한 양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³⁶⁾ 국가기록원에 보존되고 있는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78,245 건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의 공문서 현황은 <표 2>³⁷⁾와 같다.

<표 2> 국가기록원의 조직위원회 공문서 소장 현황

구분		기록물건
연 도 별	1981	176
	1982	1,045
	1983	2,169
	1984	3,934
	1985	10,802
	1986	27,699
	1987	16,757
	1988	14,744
	1989	919
계		78,245

<표 2>에 의하면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대회 개최 시기인 1988년을 기준으로 이에 근접할수록 많은 양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회 개최 시기에 임박해서 공문서의 생산량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시기 기록에 비하여 이전 시기 소장 기록의 양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조직위원회의 공문서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대회 준비 초기 조직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의 부족도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소장 기록 중 조직위원회의 중요한 의사

36) 2007년 4월 20일 기준.

37) 국가기록원 내부자료 참고.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집행위원회 회의록과 의사록의 소장 현황을 검토한 결과³⁸⁾ 회의록 총 21건 중 6차, 21차, 23차의 3건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사록의 경우 21차와 50차의 2건의 의사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문서관리의 비효율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조직위원회의 일부 공문서는 파편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공문서의 관리 실태

① 보존과 분류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대부분 M/F³⁹⁾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문서는 원본 형태로 부산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⁰⁾ 또한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에 대한 분류 작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¹⁾

② 제공 서비스

국가기록원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28개 국정분야별로 정책, 사건, 인물, 협약 등의 주제를 개괄하고 관련 기록물을 연계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⁴²⁾는 5,800여 개의 주제 콘텐츠를 통해 우리나라 국정 관련 기록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⁴³⁾ 그러나

38) 국가기록원 내부자료 참고.

39) Microfilm.

40) 2008년 3월 26일,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팀 담당자 인터뷰 자료 참고.

41) 국가기록원은 정부의 모든 공공기록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 분야별, 기능과 조직, 주제 유형별로 기록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어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분류 작업은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2) 2008년 4월 기준.

4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지식 포털 시스템 : <http://contents.archives.go.kr/> 참고.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열람하는 주된 이용 대상은 당시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⁴⁴⁾ 이는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보존 관리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4)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특성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조직위원회의 구조와 운영, 공문서의 생산 구조 그리고 공문서의 보존 관리 현실에 영향을 받아 기록 출처의 다원성, 기록의 파편화 그리고 잔존기록의 불균형 등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 기록 출처의 다원성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는 총무국이 중심이 된 업무부서와 프로젝트 중심의 여러 국과들로 형성되어 조직구조가 매우 복잡한 매트릭스(Matrix)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현되는 특성이다. 둘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현존하는 자체가 일부분이고, 기록의 파편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록의 출처와 원질서를 훼손하는 기록의 파편화 현상은 기록의 생산 조직과 구조의 왜곡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기록의 생산 구조는 문서관리 부서와 문서규정과 같은 구조적 환경과 실제로 문서가 생산되고 관리되는 활동 영역으로서 구성된다. 실제로 조직위원회는 한시적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시기관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새롭게 조직되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대한 기록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확립된 룰(rule)과 경험의 보존이 거의 없었다. 셋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현존하는 양이 일부분이고 잔존 양태도 불균형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기한 바와 같이 문서 생산 당시의 생산 조직과 구조의 왜곡에서 뿐만 아니라 문서 생산 이후 단계의 기록

44) 2008년 3월 26일 기록정보공개서비스팀 담당자 인터뷰 자료 참고.

관리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미평가, 미정리되어 있는 기록이다.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에 대한 보존 관리 실태를 검토한 결과,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아직까지 평가와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현재와 미래의 효용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이용대상자가 한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주요 이용자의 목적은 당시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 자신의 근무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4.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조직위원회의 공적 업무 행위에 따라 발생한 기록물로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생산 조직 및 구조 그리고 보존 현황이 일반적인 조직에서 생성되는 기록과는 다른 특성을 소유하고 있어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생성 당시의 출처가 복잡하고 소장 기록의 파편화 현상을 보이며 잔존 기록의 양상이 불균형한 특성 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과 기준 그리고 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1)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방법

(1) 미시평가론의 적용: 정보가치론과 재평가론

① 정보가치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미평가, 미정리된 기록들을 대상으로 그 정보적 가치나 사료적 가치를 평가하는 정보가치론을 적용하는 것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다.⁴⁵⁾ 그러나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평가를 위해서 정보가치론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로 구성된 2차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해야 하는 일반적인 역사 사료와는 달리 1차적 가치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인 역사 사료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현재적 관점에서 기록 생산자에게 기록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나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형태에서 생성된 기록의 경우 기록물을 생산한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가치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공문서의 경우, 당시 기록이 조직이나 개인의 활동과 행위에 어떤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차후 유사 조직의 행정과 운영을 위해서 효과적인 참고자료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할 때는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로 구성된 2차적 가치도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조직위원회의 기원, 조직, 정책, 기능 절차와 행위의 증거를 제공하여 조직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알려줄 수 있는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위원회의 집행 기관에서 집행한 각종 정책이나 경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도를 알려

45) 이상민, 「일제시기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 혹은 재평가- 이론적 쟁점과 평가의 실제-」, 『기록학 연구』 제14호, 2006, 17쪽.

주는 정보가 포함된 기록의 경우 정보적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2차적 가치를 평가할 때 증거적 가치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출처가 복잡하고 파편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잔존 형태가 불균형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 중에 정보 가치가 높은 기록은 기획, 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일 것이다. 현존하는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일상적인 적용과 시행을 다루는 정책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계속적인 활용가치가 없는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공문서규정에서는 조직위원회 기록을 영구기록으로 분류했지만 이를 평가하는 것은 생산자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하였고, 더욱이 폐기 규정을 두어 정책 수립에 관한 기록을 제외하고는 폐기했기 때문이다.⁴⁶⁾

② 재평가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재평가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특성 중의 하나는 기록 이용대상자가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에 대한 활용도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열람하고 있는 대상은 주로 자신의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당시의 조직위원회의 업무담당자들뿐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현재적 활용도뿐만 아니라 미래의 효용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여기서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록의 정리와 기술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함께

46) 이경용,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기록학 연구』 제10호, 2006, 249~250쪽 ; 이상민, 같은 글, 17쪽.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록 이용을 위한 관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 속에서 기록의 현재적 활용도를 반영한 미래의 효용 가치를 파악하는 일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미래의 활용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사실상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정리와 기술 작업이다.⁴⁷⁾

(2) 거시평가론의 탐색: 문서화 전략론과 기능평가론

① 문서화 전략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가 미평가되고 미정리되어 있어 그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해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의 활용가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서울올림픽대회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현재나 미래의 가능한 동향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서울올림픽대회를 도큐멘테이션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영역을 지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급한 선결과제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조치인 기록에 대한 정리와 분류 작업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가 파편화되어 있고 잔존 기록의 형태가 불균형해서 기록 생산자가 지니고 있던 가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생산 조직과 구조, 그리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남아 있는 기록의 파편화 정도가 심하고 불균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기록

47) 이상민, 같은 글, 22쪽.

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과 형태를 지닌 기록을 통해서 당대의 가치 기준을 파악하여 이를 종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② 기능 평가론

기능평가론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기능부서의 조직은 정부 구조와 같이 업무 기능에 따라 그 구분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직위원회의 기능부서는 서로간의 업무 경계가 명확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록의 생산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는 작업이 용이하다. 그러나 기능 평가론을 적용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생산조직인 조직위원회의 구조가 매트릭스(matrix) 구조 즉, 조직의 운영과 행정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 부서인 기능부서(사무처)와 대회 운영 및 국제 관계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프로젝트 부서로 구성되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직위원회의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과 기능의 가치 서열화를 통한 기능 분석 평가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부서의 경우 조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⁴⁸⁾ 둘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거시(기능) 평가를 시행할 때 사무처의 총무처 직제가 사업 수행의 변화에 따라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직제 개편이 큰 골격을 유지한 채 조직위원회의 사무와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처를 포함한 기능부서로 한정되었고, 업무 수행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최소한으

48) 전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의 프로젝트 부서는 사무처의 직원들이 프로젝트의 계획과 수행을 위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록은 대부분 결과 보고서의 형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부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능 평가론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3) 평가 방법론의 선택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정합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보가치론과 기능평가론의 논의를 효과적으로 절충해야 한다. 이는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생산 조직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매트릭스 구조 즉, 조직의 운영과 행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능(업무) 부서인 사무처 조직과 대회 운영 및 국제 관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부서로 구성되어 기록의 출처가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처 조직에서 생산한 공문서는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거시평가를, 대회운영 및 국제 관계 업무 부서에서 생산한 공문서의 평가는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한 미시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절충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2)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기준

(1) 내용분석의 기준

내용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선 기록물 속에 다큐멘테이션 된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사항이다.⁴⁹⁾ 서울올림픽대회는 한국의 현대 체육사를 관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현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하기

49)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105쪽.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공문서 군은 이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세부적인 공문서 건과 철이 당시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하게 밝혀주는가가 주제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다음의 두 번째 요소에 해당한다.⁵⁰⁾ 둘째, 기록물이 그러한 주제를 얼마나 잘 다큐멘테이션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기록의 완전성, 기록의 시간 범위, 정보의 일반적 질이 고려사항이 된다.⁵¹⁾ 이는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해당 자료가 그 업무 행위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시간적 범주는 어떠한가, 조직위원회의 기록물 생산자와 기록물과의 관련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높은가를 판단하는 것이다.⁵²⁾

(2) 기능분석의 기준

기능 평가에서는 중요기록이 산출될 가능성 있는 영역을 선별·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능 평가는 기관 및 기능의 위계, 즉 사회적 배경이라는 ‘출처’에 기초하여 기록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등급의 기준은 기능의 다양성, 정치적 위치, 크기, 예산, 사회적 영향 등이다.⁵³⁾ 국내에서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한 것은 이승일(2005)의 연구⁵⁴⁾가 있다. 이승일(2005)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조와 공문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먼저 조직위원회 기능부서의 조직 위계의 기준을 제시하면 <표 3>⁵⁵⁾

50)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일제시기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에 관한 기록학적 평가 사업 예비 계획서』, 10쪽.

51)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106~107쪽.

52)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일제시기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에 관한 기록학적 평가 사업 예비 계획서』, 10쪽.

53) Terry Cook,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 Sampling and Selecting Case Files”, *Archivaria*, 32 (Summer) ; 이승일, 「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군을 중심으로-」, 『기록학 연구』 12호, 2005, 218쪽.

54) 이승일, 같은 글, 179~235쪽.

과 같다.

〈표 3〉 조직 위계 결정요소

		조직 위계 결정요소
조직 위 계	A (상위조직)	① 조직위의 사업 결정 및 조율기구(의원총회, 집행위원회) ② 각종 사업 심의 및 자문기구(간부회의,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③ 대회 준비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조직(기획국) ④ 위원장의 지시사항 처리기구(비서실) ⑤ 조직과 대회 운영을 위한 중요 조직(총무국, 안전국, 개폐회식국)
	B (중간조직)	① 인원 및 예산 규모가 특히 큰 조직(선수촌국, 물자국, 기술국, 자료국) ② 대회 운영에 관한 조직(정책연구실, 제1기획관, SPOC 담당관, 의전관, 사업국, 인력국, 시설관리국, 수송국, 관중편익국, 기자촌국, 숙소사업조정관) ③ 조직 운영에 관한 조직(제2기획관, 제3기획관, 법무실)
	C (하위조직)	① 국내보도 홍보 담당 조직(대변인실) ② 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감사관) ③ 문화 행사 담당 조직(문화예술관, 조형작품전시기획관)

조직위원회의 활동 양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계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능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기능과 중요하지 않은 기능의 선별은 선별된 조직의 업무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조직위원회의 각 기능부서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일부 기능의 경우 2개 이상의 조직이 수행하는 복합적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에서 생산한 문서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직 서열뿐만이 아니라 기능의 서열도 고려해야 한다.⁵⁶⁾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승일(2005)은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능 선별

55) 이승일, 같은 글, 218쪽.

56) 이승일, 같은 글, 223쪽.

요건을 표준화했는데 이를 조직위원회의 분장 사무에 적용한 결과는 <표 4>⁵⁷⁾와 같다.

〈표 4〉 기능 위계 결정요소

		기능 위계 결정요소
기능 위 계	A (상위기능)	① 해당 업무가 사업 결정 및 심의·자문 기능이 있는가 ②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가 ③ 조직위 규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가 ④ 해당 사안의 결재권자가 누구인가 ⑤ 대회 준비 및 운영 담당자들의 상호작용을 직접 반영하는가(집행 및 조정 간부회의 사안) ⑥ 해당 조직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중요 기능 및 활동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사무분장 상의 중요기능을 핵심기능으로 간주) ⑦ 해당 업무가 의원총회나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업무인가 ⑧ 해당 업무가 단일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많은 조직과 관련이 있는 복잡한 업무인가
	B (중간기능)	① 업무 지침 등에 의해 수행되는 사안 ② 해당 사안의 결재권자가 각 과장인 업무 (확대 간부회의 사안) ③ 조직위의 예, 결산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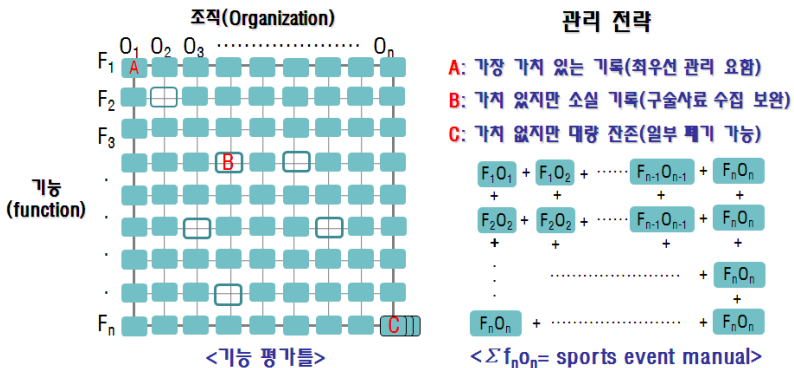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조직위원회의 기능 서열은 대회 준비와 운영에 관한 업무 여부를 감안하고 법률, 정관 그리고 각종 지침과 같은 제도적 요인과 해당 사안에 대한 결재권자의 위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즉, 조직위원회의 기능 위계 결정 요소 역시 조직의 위계 결정 요소에서 고려한 대회 준비와 운영의 측면을 감안하여 분류하였다.

이상의 방법론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57) 이승일, 같은 글, 223~224쪽.

위한 기능 분석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기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은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⁵⁸⁾한 것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우선, 기능의 위계 결정 요소를 고려하여 상위 기능부터 중간 기능을 행으로 배치하고, 조직의 위계 결정 요소를 고려하여 상위 조직부터 하위 조직을 열로 배치하면 기능평가 틀이 완성된다. 이러한 기능평가 틀에 A, B 그리고 C를 포함한 잔존 기록들을 대입하면 A와 같은 중요기록, B와 같은 소실 기록, 그리고 C와 같은 중복 보존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선, A와 같이 조직이나 기능의 측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은 최우선의 관리를, B와 같이 가치 있지만 소실된 기록은 구술 사료 수집과 같은 적극적인 수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C와 같이 가치가 없지만 대량 잔존하는 기록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폐기하는 관리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1〉 기능 평가 틀과 관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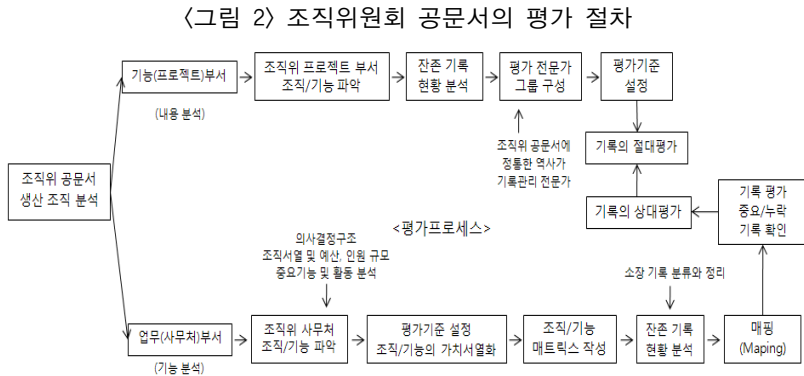


58) 김익한,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평가방법 시론-조선총독부 공문서의 평가절차론 수립을 위하여-」, 『기록학 연구』 13, 2006, 192~200쪽.

이러한 논의는 차후 올림픽 개최나 국제 스포츠 이벤트 대회의 매뉴얼(manual)을 제작하는데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은 기능 평가 틀과 관리 전략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진 후 이 모든 기록을 모으면 이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 대회의 매뉴얼(manual)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절차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절차는 <그림 2>⁵⁹⁾와 같다.



<그림 2>에서 유의할 점은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생산 조직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조직위원회의 업무 활동의 산물로서 생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9) 김익한, 같은 글, 192~200쪽.

이때 유의할 점은 평가에 의해서 기능 부서에서 생성한 공문서에 대한 상대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검토하는 즉, 내용 자체를 다시 분석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능분석 자체가 상당한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용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대상으로 올림픽 사료의 이용과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검토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기록의 평가와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검토하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올림픽대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절차를 수립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록의 평가와 평가이론의 검토 부분에서는 기록 평가를 위해서는 기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기록 평가론의 흐름 영역에서는 기록 평가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적 시각을 확립하였고, 미시평가와 거시평가의 이론에 대한 진화 과정을 비교적 시각으로 확인함으로써 평가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후, 개별 평가이론의 방법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고, 내용분석과 기능분석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파악하여, 기능분석이 내용분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과 이들 분석의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설계한다면 이를 절충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는 부분에서는 우선,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조직위원회의 실체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조와 운영방식, 의사결정에 관한 기구와 전개 양상의 측면을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조직위원회가 한시적 조직이었다는 특성과 함께 이원적 조직구조를 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부서와 프로젝트 부서로 구성된 매트릭스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위원회의 의사결정의 기구와 전개 양상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결정기구가 명목상의 기구에 불과하였다는 점과 위원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문서관리 부서, 문서 규정 그리고 공문서의 생산과정과 관리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체계적이지 못한 문서관리 부서와 문서 규정으로 인해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일부 기록이 소실되고 기록의 파편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생산 과정과 관리 측면을 검토한 결과, 조직위원회에서 공문서가 생산, 유통, 보존 그리고 폐기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문서관리 부서의 비체계성과 문서규정의 비효율성에 의해서 공문서의 폐기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관리 실태의 차원에서는 공문서의 이용과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정리와 기술 활동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기록출처의 다원성을 지니고 있었고, 기록의 출처와 원질서가 훼손되는 파편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잔존 기록의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였다. 이외에도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평가와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현재와 미래의 효용가치를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이용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 방법론의 탐색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쟁점은 미시평가의 정보가치론과 재평가론의 적용 가능성 여부였다. 먼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오랜 기간 미평가, 미정리된 기록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정보적 가치나 사료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정보가치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재평가론은 기록 이용대상자가 한정적이어서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활용도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잔존하고 있는 기록이 일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평가 틀이 되지는 못했다. 한편, 재평가론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의 활용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사실상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리와 기술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거시평가의 문서화 전략론과 기능 평가론의 적용 가능성 여부였다. 문서화 전략론은 조직위원회의 공문서가 미평가, 미정리되어 그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되지 않고 있어 현재의 동향과 미래의 활용가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과 기록의 파편화 현상과 잔존기록이 불균형한 상황 속에서 기록 생산자가 지니고 있던 가치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적용이 부적절하였다. 반면,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혼재된 조직 구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능부와 프로젝트 부서의 업무 기능에 따라 그 구분이 명확하고,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여 기록의 생산배경을 파악하는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능 평가론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조직위원회의 이원적 구조, 기능부서의 잦은 직제 개편 그리고 잔존 기록에 대한 정리와 기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등은 기능 평가론을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는 역사적 사료의 정보가치

평가 방식인 정보가치론과 기록의 생성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 기능 평가론의 이론적 기반을 함께 사용하는 절충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평가 기준으로는 우선, 내용분석에서는 서울올림픽대회가 한국의 현대 체육사를 관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현대적 중요성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주제의 중요도가 있음을 상정하였다. 이후 조직위원회의 공문서가 서울올림픽대회라는 주제를 얼마나 잘 도큐멘테이션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해당 자료가 그 업무 행위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시간적 범주는 어떠한가, 조직위원회 기록물 생산자와 기록물과의 관련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높은가를 제시하였다.

기능분석의 기준으로는 기능 평가론의 논의를 기반으로 조직과 기능의 가치 서열화를 의사결정권자의 정치적 위치, 인력 규모와 크기, 기능의 다양성, 예산,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기능분석이 내용분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제약점을 고려하여 기능분석에 의해 상대평가가 이루어진 기록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다시 수행해서 보완해야 정교한 기록 평가가 가능하다는 논의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올림픽대회의 사료에 대한 기록학적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서울올림픽대회 사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포함한 체육·스포츠 분야의 사료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전반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대상으로 정리와 분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들 공문서에 대한 정리와 분류 작업 없이는 사료 이용의 측면과 유용한 평가 방식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탐색된 평가방법론에 따라 효과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올림픽 공문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및 절차를 더욱 정교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사료 이용과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기록 관리의 프로세스가 수집, 정리와 분류, 선별 및 평가 그리고 이용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될 때 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논의된 선별 및 평가 영역과 상기한 정리와 분류 영역을 제외한 기록관리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수집 영역의 경우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서화 전략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스포츠와 같이 매번 독특한 이벤트를 창출하는 특성을 가진 기록 수집의 체계화를 위해서 문서화 전략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기록평가 이론의 검토 부분에서는 문서화 전략론이 수집의 체계화를 위해서 유용한 방법론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이벤트에 대한 사료 수집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문서화 전략론을 천착하여 이를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용되지 않는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쓰레기를 보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나아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왜곡된 공문서 생산 조직과 구조에 의해서 소실된 기록을 효과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구술 사료를 포함한 다양한 존재 형태를 지닌 사료 수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보존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로 남아 있는 기록이 일부분이고, 잔존 기록의 형태가 불균형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구술 사료의 수집과 특수한 형태의 기록사료의 수집은 심각한 사료 결핍 현상을 보완하여 관련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올림픽에 대한 역사 서술의 폭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끝으로, 체육·스포츠 사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관련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료 이용과 관리의 측면에서 기록학적 이론을 적극적으로 원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한다. 이는 기록사료의 평가 영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역사학에서는 기록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사료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록학에서는 역사학의 사회 구조적 맥락에 의해 이루어진 사료 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록학과 역사학의 발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좋은 연구 성과를 가지며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ABSTRACT

Archival Appraisal on Public Records of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Cheon, Ho J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lanced view for official documents of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and to establish theoretical base which assesses them in order to devise systematization of utilizing Olympic historical material.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archival appraisal and appraisal theories of archival study were investiga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official documents of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works, criteria and procedure were established with exploring the methods to assess the Seoul Olympic official documents. The details are as follows below.

The prior research task conducted in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penetrative analysis for archival structure, relationship between this analysis and the assessment, and tendency of appraisal methods which have been developed. Then, representative theories and general criteria and procedure of archival appraisal have been explored in order to grasp the concrete method of individual theories. Secondly, characteristics of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s official documents have been identified to apply archival appraisal theories which have been found through the theoretical examination. Furthermore, suitable method has been explored, and the criteria and procedure have been presented in order to assess the official documents of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with generally considering of its characteristic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hich came up with the study result above can be presented as follow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the archival appraisal work for Seoul Olympic historical archives not only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studies but also helps systematic usage and management of archives in sports field including Olympic by allowing the objective perception about them. Lastly, in order to develop sports history field and related studies, it is necessary to utilize archival theories for managing and using archives in sports field, and to precede the general and overall studies about it.

Key words: Olympic, Olympic Games, The Seoul Olympic Games, The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Records Management, Archival Appraisal